

조선 후기 궁궐 정전과 편전 지의(地衣)의 구조와 배치 방식

The Structure and the Layout of Ji-ui on the Main and the Subsidiary Hall of the Royal Pala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이 종 서*

Lee, Jong-Seo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Abstract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floor of the royal palace was covered with grass mat called ji-ui. Ji-ui was produced by connecting several mats named seokja(席子) and trimming the edge with narrow fabric named seon(緇). The standard manufacturing technique was to connect the shorter sides of the seokjas by over stitching them. A room was covered with either single or multiple ji-uIs, depending on the case. In the case of the main and the subsidiary halls (jeong-jeon and pyeon-jeon, respectively) where the king conducted official meetings with the civil servants, multiple ji-uIs were laid out to signify the division of space, which reflected the ceremonial aspects of the governing acts. The most essential division was the distinction of yeong-wae(楹外) and yeong-nae(楹內), with the jeon-goju (a tall frontal pillar inside the hall) functioning as the breakpoint. Jeong-jeon was divided into four spaces each covered with one ji-ui: yeong-nae, yeong-wae, and the left and the right sides of the royal seat named jwa-tap(座榻). Pyeon-jeon was covered with three ji-uIs that divided the hall into three spaces: yeong-nae, yeong-wae, and hu-twae(後退) (the hind section) where the royal seat was placed on.

주제어 : 궁궐, 지의(地衣), 정전(正殿), 편전(便殿), 영내(楹內), 영외(楹外)

Keywords : Royal palace, Ji-ui, The main hall(jeong-jeon), The subsidiary hall(pyeon-jeon), Yeong-nae, Yeong-wae

1. 서론

조선시대 궁궐에 ‘지의(地衣)’를 깔았다는 사실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그간 궁궐 건물의 전돌[方磚], 마루의 널[廳板], 방의 장판지[油氈]를 바닥의 완성된 형태로 여겨 왔다. 그러나 궁궐에서 의례용과 주거용 건물을 막론하고 바닥 전체에 ‘지의’로 칭한 깔개를 깔았다. 전돌, 널판, 장판지는 바닥의 기초 시설이고, 이들 시설 위에 지의를 깔 것이 궁궐 건축의 완성된 바닥 형태였다.

지의를 다룬 이른 시기 연구에서는 구들을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방식과 보온에 유의한 시설로 이해하였다.¹⁾ 그러나 각종 기록에서 국왕이 거처하거나 남시는

건물 바닥에 지의를 깔았음이 확인된다.²⁾ 최근 지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왕릉 정자각이나 궁궐의 연향 공간에 한정하였으며³⁾ 지의의 구조와 종류, 까는[鋪

1)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 도구」, 『역사민속학』 24, 2007

2)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참조.

3) 석진영, 「궁궐 연향 공간의 지의 연구」, 『건축역사연구』 29-1, 2020 ; 장경희, 「조선 후기 왕릉 정자각 내부 의물 연구」, 『역사민속학』, 33, 2010

‘지의’는 모직물이나 비단으로 제작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행사 기록에서 ‘지의’로 표현된 깔개는 초본류로 짠 ‘석자(席子)’를 이어서 만들었음이 확인되므로 본고에서는 초본류로 제작한 지의에 국한하여 분석하겠다. 석자의 제작 방식은 보성 용문석처럼 울이 촘촘하고 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은경밀직] ‘돛자리’와 강화 화문석처럼 울이 성기고 실이 외부로 노출되는[노경소직] ‘자리’로 나뉜다. 1900년대 초의 사진자료와 현존 실물에서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는 돛자리였음이 확인되므로, 본고에서 석자는 ‘돛자리’에 국한한다. 또한 전돌 바닥에는 하부에 ‘노점(蘆簾)’으로 칭한 깔대 자리를 깔고 노점 위에 지의를 깔았으나, 본고에서는 ‘노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의만 다룬다.

* Corresponding Author : ljs6102@naver.com

이 논문은 2023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하였음.

陳]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파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석자(席子)를 이용한 지의의 제작 방식, 선(繡)의 종류와 위치, 지의의 크기 구분, 까는 [鋪陳] 방식 등을 기록에서 살핀 뒤, 현존 회화자료와 사진 자료, 실물과 비교하여 조선 후기 지의의 전형적 구조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 정전과 편전으로 구성된 궁궐 법전(法殿)의 지의 배치 방식을 확인할 것이다.

법전은 궁궐을 대표하는 건물이자 가장 권위가 크고 위상이 높은 정치 의례를 거행한 건물이다.⁴⁾ 따라서 정전과 편전은 위상과 성격에 맞게 공간을 구획하고 지의를 깔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전의 지의는 단지 편의로운 깔개가 아니라 정치 의례에 부합하는 공간 구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존 궁궐 법전에 지의를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실증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궁궐 지의의 구조와 배치 사례

2-1. 지의의 구조와 배치 방식

‘지의(地衣)’ 용례는 “가는 명주로 지의의 가선을 두른다[以細紬緣地衣]”는 태종 때의 표현에서 처음 보인다.⁵⁾ 이 지의는 왕비의 처소에 깔 것으로, 태종은 명주를 목면으로 바꾸게 하였다. 지의는 명주나 목면 등으로 가장자리를 둘렀음을 알 수 있다. 지의의 가장자리를 천으로 두르는 방식은 고려시대에도 확인된다. 『고려도경』에서 무늬 있는 자리[文席]를 설명하면서 “정교한 것은 상탑에 깔고, 거친 것은 땅에 까는데 쓴다[精巧者 施於床榻 粗者 用以藉地].”라고 한 뒤 “청색과 자색으로 가장자리를 두른다[靑紫爲襪]”라고 하였다.⁶⁾

성종 때의 기록에서 지의는 석자(席子)를 이어 붙여 만들었음이 확인된다. 성균관 제사 때에 자리[席]를 이어 꿰매지 않아 바람이 불면 말려 일어나니 석자(席子)를 무역하여 지의를 만들자고 하였다.⁷⁾ ‘석자(席子)’는 일정한 규격으로 짠 깔개를 뜻하고, 지의는 석자를 여러 개 이어 붙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의례에서는 ‘△△석(席) ○○장 부(付) 지의 ○부(浮), □

□선(繡)’이라는 투식화 된 표현이 나타난다.

‘△△석’은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의 종류를 나타낸다. 무늬가 없는 것은 백문석, 무늬가 있는 것은 유문석으로 칭하였다. 황색으로 물들인 것은 황화석으로 칭하였다. 유문석은 다시 채화석, 별문석 등으로 나뉘었다. 별문석은 직조 방식에 변화를 주어 바탕에 무늬가 생기게 짠 돛자리이다. 채화석은 돛자리 위에 염색한 초본을 수놓는 방식으로 꿰어 별도의 채색 무늬를 만든 것이다. 꽃을 수놓으면 ‘만화석(滿花席)’으로, 용을 수놓으면 ‘용문석(龍紋席)’으로 구별하였다. ‘○○장’은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의 총수를 뜻하고, ‘부(付)’는 붙인다는 뜻이다. ‘○부(浮)’는 지의의 개수를 뜻한다. 지의의 단위를 ‘부(浮)’로 표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은 지의의 테두리를 두른 천[繡] 즉, 가선의 종류이다.

1649년 『(인조)빈전도감의궤』에서 혼전에 까는 지의를 ‘별문상석육십구장부지의일부, 청목선[別紋上席六十九張付地衣一浮靑木繡]’이라고 표현하였다.⁸⁾ 별문상석은 석자의 종류이고, 69장은 단일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의 장수이고, 69장을 이어 붙여 만든 지의는 1부이며, 선감은 청색 목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별문상석 69장을 붙여 지의 1부를 만드는데 청색 목면으로 선을 두른다.”로 해석된다. 인조의 혼전이 된 창경궁 문정전은 실내 전체 바닥에 단일 지의를 깔았으며 이 지의는 별문상석 69장을 이은 뒤 가장자리에 청색 목면으로 선을 두른 것이다. 이처럼 지의는 건물의 평면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1부의 지의를 만드는데 필요한 석자 수도 일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의를 구성한 석자 수에 따라 대·중·소로 등급을 나누어 표현하기도 하였다.

① 대지의 1부, 소지의 3부[大地衣一浮 小地衣三浮](『숙종인현후』 책례도감의궤(1694))

② 도제조 이하가 공무를 볼 때에 대청 배설에 소용되는 대지의 2부 중지의 1부[一都提調以下坐起時大廳排設所用大地衣二浮 中地衣一浮](『경종세자』 책례도감의궤(1690))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 지의는 석자 수에 따라 대지의/중지의/소지의로 구별하였다. 의궤 기록에서 ‘대지의’로 표현된 지의의 석자 수가 다양하게 나타나 대·중

4) 이종서, 「조선시대 ‘편전(便殿)’의 의미와 구성의 변화」, 『건축역사연구』 30-6, 2021 참조.

5)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1416) 5월 1일(임진)

6) 『선화봉사고려도경』 권28 공장(供張) 1

7) 『성종실록』 권210, 성종 18년(1487) 12월 2일(정묘) “於釋奠時所設之席 不連綴 故風吹則捲起 請以本館奴婢身貢綿布(중략)質席子造地衣”

8) 본고에서 원문 검색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의(<https://kyu.snu.ac.kr/>)의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검색이 되는 기록은 본고에서 의례의 명칭만 제시한다.

·소는 정해진 규격이 아니라 지의의 상대적 크기 차이를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의는 건물 내부의 형태와 면적에 맞게 제작했으므로, 석자를 배열하는 방식도 평면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었다. 평면의 가로와 세로 길이에 맞게 적절하게 석자를 이어 지의를 제작한 것이다.

“백문석 12장을 붙인 지의 2건은 화보(畫繡)를 묶을 때에 우선 옮겨 쓴다.○청목선이다.○12장을 붙여 길이와 너비가 너무 커서 펼쳐 깔기가 역시 어려우면 9장으로 마련해도 무방하다.[白紋十二張付地衣二件 畫繡結褵時先爲移用○縹青木○十二張付之長廣太大展鋪亦難 以九張磨鍊無妨]([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21)])”

위 기록은 관을 장식하는 작업을 할 때 바닥에 까는 지의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 지의는 실내 바닥 전체를 덮는 지의가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면적만큼 구획하여 임시로 깔 지의이다. 백문석 12장으로 구성된 지의 2부를 까는데, 공간이 협소하면 9장으로 구성된 지의를 써도 좋다고 하였다. 12장을 붙인 지의의 가능한 석자 배열은 1×12장, 2×6장, 3×4장이다. 그런데 ‘12장을 붙여 길이와 너비가 너무 커서’라고 한 뒤에 ‘9장으로 마련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므로 이 문장에서 석자 12장으로 구성된 지의는 4×3장 배열임을 알 수 있다. 석자를 4×3장 배열한 지의 2부를 까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내가 좁으면 석자 3×3장을 배열한 지의 2부를 깔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록에서 석자의 규격, 지의의 총 석자 수, 바닥의 면적과 형태 등을 확인하면 해당 평면에 실증적으로 지의를 재현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이나 구획의 평면에 맞게 지의를 제작했으므로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 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였다. 기록에서는 반장, 반반장 등 석자를 잘라서 쓴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석자를 이어가다 마지막에 남은 면적이 석자 1장보다 좁을 경우 그 면적만큼 석자를 잘라 붙였다. 평면에 주초나 디딤돌, 기둥 등 돌출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도려내야 했으므로, 지의의 가장자리가 직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가선은 시각적으로 지의의 경계와 지의가 깔린 구획을 표현하면서 도려내어 울이 풀리는 부분을 감추고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다.

일정한 구획에 맞추어 지의를 제작하여 까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위에서 본 인조 혼전의 지의처럼 전체 평면에 단일 지의를 까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문과 벽으로 구획되고, 건축 구조나 용도 면에

서 성격이 단일한 실내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청(大廳)’으로 표기한 평면에는 단일 지의를 깔았다.

<표 1>은 1829년 진찬 의례 때에 자경전 건물 안에 깔았던 지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⁹⁾

표 1. 1829년 자경전 대청과 퇴칸의 지의 구성

구분	규모	지의수	석자 종류	지의별 석자 수	선(縹)
대청	6칸	1	채화석	60	자지도주
남퇴	6칸	1	별문석	23	청목
북퇴	3칸	1	별문석	14.5	청목

자경전 대청에는 채화석 60장을 붙인 지의 1부를 깔았다. 남·북 퇴에는 각기 별문석 23장, 별문석 14.5장을 붙인 지의를 깔았다. 대청과 남·북 퇴칸에 각기 단일 지의를 깔 것은 건축적으로 구획되고, 각 구획의 성격이 단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청에 보라색 비단으로 선을 두른 채화석을 깔고 남·북 퇴에 청목으로 선을 두른 별문석을 깔 것은 공간의 위계 차이를 반영한다.¹⁰⁾ 다음으로 전체 평면을 몇 개 구획으로 나누고 각 구획의 형태와 넓이에 맞게 지의를 만들어 까는 방식이다.

표 2. 1829년 창경궁 자경전 보계와 명정전 보계의 지의 구성

건물	규모	지의 수	지의별 석자 수	선(縹)
자경전	45칸 (9×5)	7	63.25	청목
			52.25	
			15	
			15.5	
			11.5	
			4.5	
			7.5	
명정전	80칸 (8×10)	7	124	청목
			90	
			90	
			90	
			90	
			12	
			12	

위 <표 2>는 1829년(순조 29) 같은 행사에서 자경전과 명정전 앞 보계에 깔 지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¹¹⁾

9) [大廳 六間彩花六十張付地衣一浮 縹紫的吐絢 南退 六間別紋二十三張付地衣一浮 北退 三間別紋十四張半付地衣一浮 縹青木 以上前排 修補仍用]([기축]진찬의례(1829))

10) 석진영, 「궁궐 연향 공간의 지의 연구」 『건축역사연구』29-1 참조.

11) 『(기축)진찬의례(1829)』 “補階四十五間 東西九間 南北五間…別

자경전은 가로 9칸, 세로 5칸 총 45칸 규모의 보계 평면을 7개 구획으로 나누고, 약 170장의 석자로 지의 7부를 만들어 깔았다. 7부의 지의는 각기 석자 63.25장, 52.25장, 15장, 15.5장, 11.5장, 4.5장, 7.5장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지의의 석자수를 보면 석자 규격에 맞춰 구획을 분할한 것이 아니라 분할한 구획의 넓이와 형태에 맞춰 석자를 배열했음이 드러난다. 지의 가장자리에는 청목 가선을 둘렀으므로 보계 평면도 시각적으로 7개의 구획으로 나뉘었을 것이다. 개별 지의를 구성한 석자 수가 최대 63.25장, 최소 4.5장인 것을 보면 보계 평면을 행사의 절차나 성격에 맞게 용도별로 분할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명정전 보계의 지의도 동일하다. 최대 124장, 최소 12장으로 구성된 지의 크기 차이는 의례에 적합한 평면 분할을 표현하였음을 알려준다.

2-2. 회화자료의 지의 표현과 사진 및 실물 자료의 지의

앞 절에서 조선 후기 궁궐에서 복수의 석자를 잇고 선을 둘러 지의를 만들었으며, 전체 평면에 단일 지의를 깔거나 전체 평면을 복수의 구획으로 나누어 구획별로 지의를 깔았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19세기 중반 이전의 지의 실물은 남아 있지 않고, 조선 후기 회화에서 표현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국왕이나 왕비의 생일 잔치나 혼인 등을 기념하여 그린 의례 그림과 도병(圖屏)에서 지의를 표현하였다. 그런데 행사 그림에 표현된 지의는 기록으로 표현된 모습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1829년 진찬 행사 때에 45칸 규모의 보계를 7개 구획으로 나누어, 석자 63.25장에서 4.5장을 이어 만든 지의를 깔았다. 그런데 이때의 행사를 그린 「기축진찬도병」에서는 7개 구획으로 나누어 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체를 단일한 색으로 칠하여 단일 지의를 깔 것처럼 보인다. 명정전 보계의 지의 표현도 동일하다. 기록에서는 124장에서 12장으로 구성된 지의 7부를 깔았지만, 그림에서는 전체를 같은 색으로 칠하여 단일 지의를 깔 것처럼 표현하였다. 회화에서는 행사 장면을 나타내는 데 주력하여 구획 분할과 지의 개수를 보여주는 선 표현을 생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경전의 퇴와 대청에 깔 지의는 기록과 동일하게 전퇴와 대청을 분리하여 칠하였다. 전퇴와 대청

지의를 구분한 것은 ‘대청’이 있는 다른 건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1847년 왕실 잔치를 그린 「무신진찬도병」에서도 동일하게 통명전의 전퇴와 대청을 구분해 그려 기록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기록과 회화 표현의 일치 여부는 평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계나 명정전 전내는 문이나 벽으로 구획되지 않은 단일 평면이어서 행사 표현에 주력하여 단일 색상으로 칠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자경전이나 통명전은 건축구조상 전퇴와 대청, 후퇴가 명확하게 구분되기에 구획별로 지의를 깔고 사실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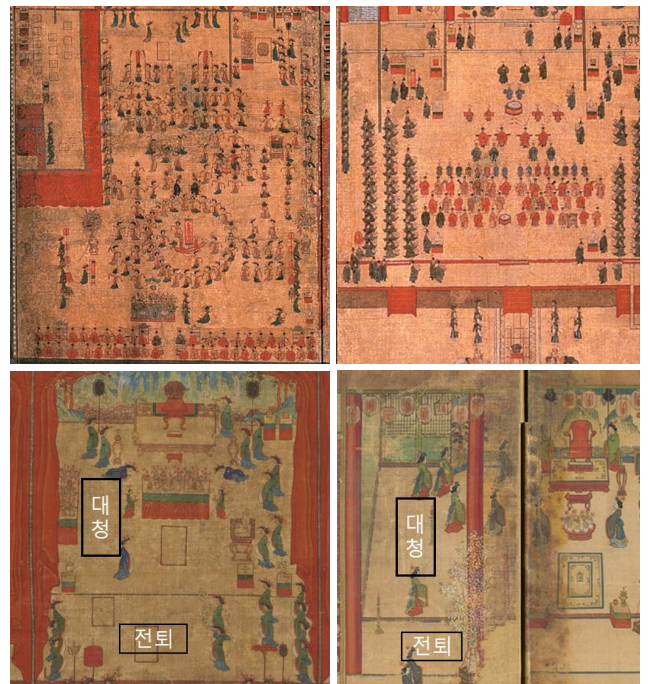


그림 1. 1829년 진찬의 자경전 보계(좌상), 명정전 보계(우상), 자경전 전퇴와 대청(좌하), 1847년 진찬의 통명전 전퇴와 대청(우하)의 지의 표현

지의의 실제 모습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제국기나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된다. 사진에서 궁궐 지의와 성격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서울 규장각 중당’에 깔 것이 확인된다. 이외에 ‘서울종로 성균관 계성사’와 ‘서울종로 문묘 동무’의 지의, ‘서울종로 종묘 정전’과 ‘함남함흥 의릉 정자각’ 지의가 확인된다.

‘규장각 중당’ 지의와 서울 성균관 계성사 및 동무의 지의는 구조가 같다. 실내에 단일 지의를 깔았는데 폭방향 마구리에 정교하게 휘감을 쳐서 연폭 부위가 도드라져 보인다. 특히 ‘규장각 중당’ 지의는 조선 후기 궁궐 지의의 구조와 형태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여겨

紋六十三張半張付地衣一浮 五十二張半張付地衣一浮 十五張付地衣一浮 十五張半付地衣一浮 十一張半付地衣一浮 四張半付地衣一浮 七張半付地衣三浮 竝繪青木.”

진다.

‘규장각 중당’으로 표기된 사진은 창덕궁 서쪽 궐내 각사 영역에 있던 규장각(이문원) 건물이 아니라 경복궁과 인접한 종친부의 중심 건물 경근당(敬近堂)이다.¹²⁾ 이곳에서는 대군 등 최고위 왕족이 회합하였고, 국왕이 방문하여 행사를 치르기도 하였다.¹³⁾

사진에 보이는 지의는 별문석지의로서 연폭한 부위가 부분적으로 헤어져 깐 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별문석지의는 채화석지의 다음으로 등급이 높은 것으로 궁궐의 정전과 편전에 깔았다. 그러므로 사진에 보이는 별문석지의는 대군 이하 왕족이 회합하고, 국왕이 친림하던 종친부 경근당의 지의로서 조선 후기 궁궐 지의의 구조와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 규장각 중당(좌상), 서울 문묘 계성사(우상), 서울 문묘 동무(우상)의 지의

서울 성균관 동무 및 계성사의 지의도 석자의 등급이 떨어질 뿐 구조는 경근당 지의와 같다. 폭 방향 가장자리가 잇닿은 부분에 정교하게 휘감을 친 것이 명

12) 사진에서 ‘규장각 중당’으로 표기된 건물은 『동궐도』에 그려진 규장각(이문원)과 전혀 다르다. 『동궐도』의 규장각은 돌기둥 위에 지은 단독 건물로서 목제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다. 사진에 보이는 ‘중당’은 전면에 석제 계단과 월대가 있고 좌·우에 익사가 있으며, 중층구조의 통방으로 중당과 익사를 연결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종친부의 중심 건물로서 현존하는 경근당과 좌·우 익사 중 현존하는 옥첩당(玉牒堂) 및 통랑과 일치한다. 경근당을 ‘규장각 중당’으로 표기한 것은 1907년 종친부를 폐지하고 규장각으로 사무를 이관했기 때문인 듯하다. 사진에 보이는 중당의 서가와 서책도 이때 옮겨 온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중당(경근당)의 도서는 1911년에 총독부 취조국(取調局)에 인계하였다(『순종실록부록』 권2, 순종 4년(1911) (양력) 6월 19일). 사진의 명칭이 ‘규장각 중당 서가’인 것을 보면 이 사진은 1907년 이후 1911년 이전에 촬영했음을 알 수 있다.

13) 『고종실록』 권5, 고종 5년(1868) 3월 20일(무진) “仍御敬近堂 行宗科庭試”

료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종친부 경근당과 서울 성균관 계성사 및 동무의 지의는 석자를 연결하여 지의를 만들고 지의 가장자리에 선을 둘러쌌다는 점에서 기록에서 유추되는 지의와 구조가 일치한다. 석자의 표면과 폭 방향 마구리의 휘감이 매우 정교하고 바닥에 깐 모습도 정연하여 수준 높은 기술로 만들고 설치했다고 짐작된다.



그림 3. 종묘 정전(좌), 의릉 정자각(중), 회혼례도(우)의 지의

그런데 종묘 정전과 의릉 정자각 사진에서는 이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석자의 폭 방향 연결 부위에 좁은 천을 올려놓고 꿰매어 연결한 모습이다. 연폭 부위 상부의 천은 폭 방향으로 석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선(緘)’이 아니다. 또한 시각적으로는 복수의 긴 지의를 깐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 지의를 깐 것이다. 석자를 일렬로 길게 연결하고 가장자리에 선을 둘러 여러 부를 쉽게 펴고 말 수 있게 한, 민간의 임시 행사에서 주로 사용했다고 보이는 좁고 긴 지의와도¹⁴⁾ 다른 구조이다. 자의(字意)를 그대로 적용하면 종묘 정전과 의릉 정자각 지의에서 ‘선(緘)’은 지의 외곽을 두른 천에 국한된다.

종묘 정전은 촬영 시기가 1909년으로 확인되고, 천의 색상이 지의 바탕색과 비슷하여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제작했음이 분명하다. 의릉 정자각 지의도 황색 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에는 1906년 종묘와 영녕전에 배치한 지의가 ‘많이 풀어지고 손상 [多有渝傷]’ 되어 ‘개비(改備)’하기로 결정한 기록이 있어,¹⁵⁾ 사진에 보이는 종묘 정전의 지의는 1906년에 설치하거나 수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종묘 정전과 의릉 정자각 지의 사진은 기록에 표현

14) 그림 3. 회혼례도 참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화 “혼인 60주년 기념 잔치(회혼례도)”에 표현된 지의는 겹친 부분을 묘사하여, 긴 지의 여러 부를 나란히 늘어놓은 모습을 알 수 있다.

15) 『승정원일기』 제3191책 고종 43년 (양력) 1월 12일(경진)

된 지의의 제작 방식 및 구조와 다르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지의의 전형적인 구조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종묘 정전과 의릉 정자각 지의와 구조가 같은 지의가 1921년에 건축한 창덕궁 신선원전에 현재 실물로 남아 있다. 신선원전 지의의 연폭 부위를 살펴보면 종묘와 의릉 지의에서 연폭 부위 상부에 천을 대고 꿰매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 창덕궁 신선원전 지의의 전경(좌)과 하배 지의의 연폭부(중) 및 상배 지의의 연폭부(우)

신선원전 지의는 하배와 상배의 두 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 깔린 지의는 채화석지의로 현재 폭보다 넓었던 석자의 양쪽을 잘라내었다. 따라서 본래 휘감을 컸더라도 그 부분이 잘려나갔으므로 상부에 천을 대어 꿰매어야 연결이 가능하다. 위에 깔린 지의는 별문석지의로 석자의 본래 폭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마구리에 휘감을 치지 않고 빠져나온 울을 묶은 뒤 바깥쪽을 잘라냈으므로 역시 위에 천을 대지 않으면 석자끼리 연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진에 보이는 종묘 정전 지의와 의릉 정자각 지의를 구성한 석자도 현 신선원전의 상배 지의처럼 휘감을 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의 제작용 석자 중에 마구리에 휘감을 치지 않은 종류가 있었고, 이러한 석자는 상부에 좁은 천을 대고 꿰매어 연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예외적이거나 편의적인 것으로, 마구리에 휘감을 쳐서 연폭하고 가장자리에 천으로 선을 두르는 것이 조선 후기 궁궐 지의의 전형적인 구조였다고 여겨진다. 종묘 정전이나 신선원전 지의처럼 만들면 단일 평면을 복수의 구획으로 나누어 구획별로 지의를 까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¹⁶⁾

16) 석자 상부에 천을 대고 꿰매어 연결한 지의는 1890년대에 궁궐에 확산하거나 보편화된 듯하다. 1892년 진찬 행사 때에 경복궁 근정전 전체 평면에 ‘맹석(孟席)’ 지의 1부를 만들어 깔았다. ‘맹석’ 용

3. 조선 후기 궁궐 법전의 지의 배치 방식

3-1. 정전 내부 지의 배치 사례와 구획별 배치

앞 장에서는 기록에서 조선 후기 궁궐 지의의 제작 방식과 구조를 살피고, 회화자료에서 지의를 표현하는 방식을 확인하였다. 이어 사진과 실물을 살펴 지의의 전형적인 구조로 여겨지는 사례를 선별하였다. 이 장에서는 궁궐의 법전인 정전과 편전에 깔린 지의에 집중하여 살펴보겠다.

현재 궁궐 정전으로는 창덕궁 인정전, 창경궁 명정전, 경복궁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명정전은 1616년에 중건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인정전은 1608년에 중건했으나 불타 지금의 건물은 1804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현재와 같은 구조로 변형되기 전에는 명정전과 동일하게 바닥에 전돌을 깔고 후벽 중앙에 좌담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구조와 설비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중건한 경복궁 근정전, 경운궁(덕수궁) 중화전까지 이어졌다.

정전은 궁궐마다 동일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었으며 최고 등급의 의례를 거행했다는 점에서 지의를 까는 방식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전에 배치한 지의 내역이 확인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아래 <표 3>에서 보듯 1609년에 인정전 내부에 유문석 총 253장으로 구성된 지의 4부를 깔았다. 4부의 지의는 각기 유문석 62장, 51장, 72장, 68장으로 구성되었다. 의례 기록에 “새 궁궐 각 전에 깔 물건 등은 이미 다 만들었다[新闕各殿鋪陳等物已爲畢造].”, “인정전 및 궐 내 각처에 배설할 포진을 새로 만든 내역[仁政殿及闕內各處排設鋪陳新造秩]” 등의 표현이 있어 이들 4부의 지의는 임진왜란 이후 인정전을 중건하고 처음

레는 기록에서 이때 처음 확인되며, 이후 대한제국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유문맹석(有紋孟席)’이라는 표현도 자주 보여 맹석은 백문석을 뜻하는 ‘맹석(盲席)’과 다른 것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1892년 근정전 바닥에 맹석 524장 반으로 만든 지의 1부를 깔면서 돌디딤돌[石踏掌]에 올려놓는 지의 12좌를 포함하여 선감으로 청목 25필 16척을 사용하였다(“孟席地衣一浮 石踏掌十二坐所排 合所入孟席五百二十四張半 縑青木二十五疋十六尺”(『진찬의례』)). 1필의 폭과 길이를 조선 후기에 통용된 포백척(46cm) 7촌×35척으로 보면 천의 폭이 32cm, 길이가 410m를 초과한다. 근정전 내부의 굴곡과 석담장용 지의 선감을 고려하더라도 둘레가 102m 정도에 불과한 근정전의 지의 가장자리만 돌렸다고 보기에 수량이 지나치게 많다. 1829년 명정전에 깔린 지의 4부의 선감 수량이 3필 28척 9촌이고, 1800년 이후 선정전에 깔린 지의 3장의 선감 수량이 2필 30척이었음을 고려하면(본고 3장 참조), 1892년 근정전에 깔린 단일 지의의 구조와 제작 방식은 1909년 종묘 사진이나 현존 신선원전의 지의와 같았을 가능성이 크다.

표 3. 조선 후기 궁궐 정전의 지의 제작과 배치 사례

건물	연도	지의 부수	지의별 석자 수	총 석자 수	석자 종류	선(縵)	선감수량	용도	출전
인정전	1609	4	62	253	유문석	청목	?	중건완공 / 사신접대	영접도감군색등록
			51						
			72						
			68						
	1804	?	?	276	별문석	아청목	10필 8척 8촌	중건완공	인정전영건도감의궤
명정전	1829	4	33.5	102.25	별문석	청목	3필 28척 9촌	진찬	(기축)진찬의궤
			33						
			18.25						
			17.5						

간 것임이 확인된다.

광해군은 인정전에서 중국의 조문사 및 책봉사와 의례를 행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나 개별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 수에서 일정한 비례를 도출하기 어렵다. 1805년에 중건한 현 인정전이 1608년에 중건한 인정전과 규모나 설비가 일치하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의식대로 연향하는 의례를 행했다.”라는 표현으로부터¹⁷⁾ 유문석으로 구성된 지의 4부는 정전 의례에 적합한 평면 분할을 표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정전의 지의 내역은 인정전을 재중건한 1804년에 다시 확인된다. 이때에는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와 선감수량만 기록하여, 석자 276장으로 단일 지의를 만들어 깔았는지 복수 지의를 만들어 깔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건 직후인 1609년에 4부를 깔았음을 고려하면 1804년 재중건한 인정전에도 4부를 깔았을 가능성이 크다. 1829년 창경궁 명정전에 지의 4부를 깔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1829년에 작성한 의궤에서는 명정전의 지의 부수와 지의별 석자수가 확인된다. 이들 지의를 깔았던 창경궁 명정전은 당시의 건축 구조와 평면을 유지하고 있어 지의 부수와 석자수를 대입하여 각 지의의 형태와 규모, 석자 배열과 석자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다. 명정전 내에 깔 지의는 각기 별문석 33.5장, 33장, 18.25장, 17.5장으로 만들었다. 이로부터 명정전 내부의 4개 구획은 각기 2개씩 면적이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1829년 의궤 기록에서 확인되는 비례를 현존 명정전 평면에 적용하면 그림 5)와 같다.¹⁸⁾

현재 명정전 내부는 전면에 고주가 있고, 북쪽 중앙에 좌탑이 있다. 그런데 안목치수로 전면 평주로부터 좌탑 전면 계단 끝까지의 거리를 2등분하면, 각각 265.2cm가 되고, 등분하는 지점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선은 전고주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형성된 각 구획의 면적은 48.31㎡와 47.6㎡가 되어 비례로는 33.5 : 33.0이 된다.¹⁹⁾ 각 구획의 지의를 만드는 데 투입한 석자 33.5장, 33장의 비례와 정확히 일치한다. 좌탑 좌우는 후벽 섬돌 아래에 기준하여 깔았다고 추정된다. 각 구획의 면적은 25.97㎡과 26.90㎡가 되어 비례로는 18 : 18.5가 된다. 각 구획에 투입한 석자 17.5장과 18.25장의 비례와 거의 같다. 이렇듯 현 명정전 내부 4개 구역의 면적 비례는 1829년 명정전에 깔 지의 4부의 석자 수 비례와 같거나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지의 4부는 각기 전면 벽에서 전고주 중심선에 이르는 구획, 전고주 중심선에서 좌탑 전면 계단 끝에 이르는 구획, 좌탑 좌측 구획, 좌탑 우측 구획에 깔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석자 33장의 약수를 고려하면 33장 지의의 석자 배열은 3×11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배열을 적용하면 1829년에 명정전 지의를 제작하는 데 쓰인 석자 1장은 길이가 164.4cm, 폭이 82.6cm 정도로 산출된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2 : 1에 가깝다. 이처럼 의궤 기록의 지의 수와 석자 수, 지의와 석자의 배열이 현존하는 명정전의 평면에서 정합적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1829년 진찬 때에 명정전에 깔았던 지의는 재현이 가능하다.

궁궐 정전의 지의 내역은 위 <표 3>에 정리한 세 사례 외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정전의 지의 내역이

17)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7, 광해군 1년(1609) 6월 5일(갑인) “未時 天使到 詣 昌德宮 行宴禮于仁政殿 如儀”

18) 문화재청의 명정전 평면도를 저본으로 하고,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안목치수를 도출하여 길이와 면적을 산출하였다.

19) 건물 평면이 완전한 방향을 이루지 못하여 구획 간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 4개 구획이 2개씩 석자수가 거의 같으면서도 석자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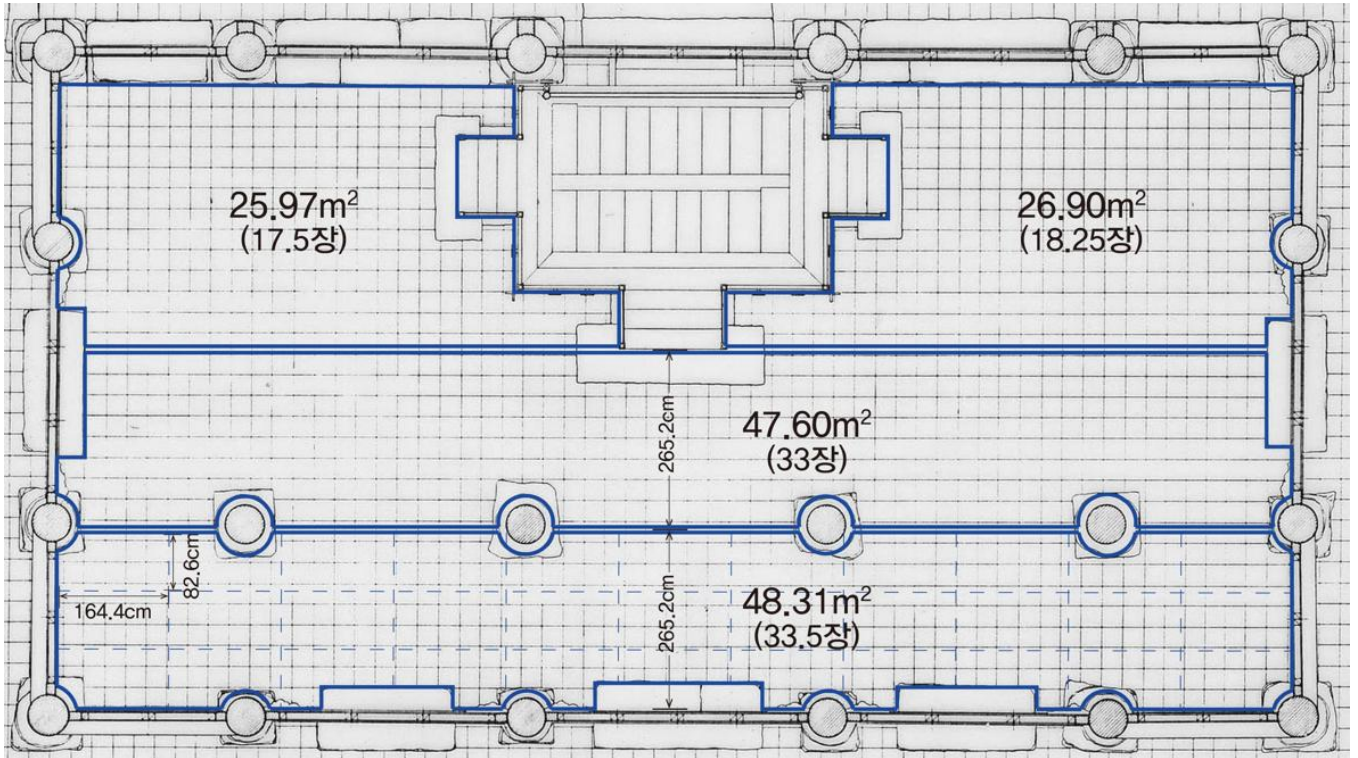


그림 5. 명정전의 구획별 면적과 지의 재현 및 석자 규격

이처럼 드물게 확인되는 것은 국왕이 거처하는 궁궐의 정전에 지의를 늘 깔아두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정전에서는 망궐례나 정조하례 등의 정기 의례와 책봉 등의 부정기 의례를 자주 거행하였다. 인정전의 지의 내역이 확인되는 두 사례 모두 중건 후 처음 간 경우인 것은 인정전에 지의를 늘 깔아두어 행사 때에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창경궁에는 국왕이 거처하지 않아 명정전에 지의를 깔아 두지 않았기 때문에, 1829년 행사 때에 새로 만들어 깔고 의궤에 수록했을 것이다. 1701년 창경궁 문정전이 인현왕후의 혼전으로 지정되자 “명정전 수리…배치할 지의를 곧 만들 것인데 전에 배치한 지의가 없으므로…[明政殿修理(중략)所排地衣今方造作是乎矣既無前排地衣故(하략)]”라고 보고한 사례는²⁰⁾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정전 지의의 내역이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만, 정전 지의는 일정한 규범에 따라 배치했을 것이며, 1609년 인정전에 처음 간 지의의 수량이 4부였고, 1829년 진찬 때에 명정전에 간 지의의 수량 역시 4부인 것을 종합하면, 궁궐 정전에 지의의 4부를 까는 것이 관례나 규범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인현왕후의 혼전을 경덕궁(경희궁) 계상당으로 변경하여 명정전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2. 편전의 지의 배치 사례와 구획별 배치

편전은 정전에 비해 지의의 내역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편전은 중요한 왕실 의례인 상례의 거행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창덕궁 선정전과 창경궁 문정전은 수차 국왕이나 왕비의 빈전이나 혼전이 되었고, 그때마다 작성한 의궤에 전 내에 간 지의의 부수와 석자 수량을 기록하였다.

아래 <표 4>는 선정전의 지의의 내역이 확인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첫 사례는 선정전을 중건하고 1609년 처음으로 간 것이다. 개별 지의를 구성한 석자 수에서 일정한 비례가 도출된다. 28장, 20장, 20.5장은 평면을 같은 면적의 두 개 구획과 이보다 8장만큼 넓은 한 개 구획으로 나누었음을 알려준다. 광해군은 이들 지의 위에서 중국 사신에게 절차에 따라 연향을 베풀었다.²¹⁾

1659년과 1675년 두 사례는 빈전이 되었을 때 간 것이고, 1800년 이후의 네 사례는 혼전이 되었을 때 간 것이다. 혼전이 되었을 때는 모두 3부를 깔았다. 빈전이 된 1659년과 1675년의 두 사례는 빈전을 설치하는 부분에 ‘전 안에 배설하는 별문상석 대지의 66립[殿內所排別紋上席大地衣六十六立]’이라고만 기록하여 지의

21)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6, 광해군 1년(1609) 5월 5일(을유) “卯時 駕幸昌德宮 請宴于宣政殿 巳時 天使至 王出門 下階 迎入 同陞殿 茶禮後 行中杯禮 左議政李恒福以下六宰各行盃禮”

부수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1675년 의궤 기록의 다른 부분에서는 ‘발인한 뒤에 빈전의 불태운 물건 항목[發靱後殯殿燒火物件秩]’이라는 표기에 이어 소각한 물건의 명칭과 수량을 적어놓았다. 이 중에 ‘전 안의 대지의 3부[殿內大地衣三浮]’라는 표현이 있다. ‘별문상석 대지의 66장’은 지의 3부를 구성한 석자의 총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표현을 쓴 1659년의 빈전 지의 역시 3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선정전은 <표 4>에 정리된 사례 모두 3부를 깔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조선 후기 선정전 내부의 지의 내역

연도	지의 부수	지의별 석자수	총 석자수	석자 종류	선감 수량	출전
1609	3	28	68.5	유문석		영접도감군색등록
		20				
		20.5				
1659	3(?)	66 (대지의)	66	별문상석		(효종)빈전도감의궤
1675	3	66 (대지의)	66	별문상석		(현종)빈전도감의궤
1800	3		31장 3문	황화석	2필 30척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34	3		47장 3문	황화석	2필 30척	순조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49	3		40장 3문	황화석	2필 30척	현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1863	3		40장 3문	황화석	2필 30척	철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선정전은 1800년부터 선감 수량도 확인된다. 네 사례 모두 2필 30척으로 수량이 동일하다. 그런데 지의 3부를 구성하는 석자의 총수는 시기별로 달랐다. 1800년에 총 31장 3문을 쓴 데 비해 1834년에는 총 47장 3문, 1849년에는 40장 3문을 써서 시기별로 차이가 크다. 그런데도 선감 수량은 2필 30척으로 동일하다. 석자수가 달라도 선감 수량이 일정한 것에서 전 내의 평면 분할이 일정하여 해당 구획에 칸 지의의 규격과 면적이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지의 1부를 구성하는 석자수가 시기별로 달라져도, 해당 지의의 규격과 면적이 일정했기에, 가장자리를 두른 선감의 수량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선정전 지의 4부를 만드는 데 쓴 선(縵) ‘2필 30척’은 지의 가장자리에만 선을 두르고 연폭 부위 상부에는 천을 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경궁 문정전을 살펴보자.

<표 5>는 문정전의 지의 내역이 확인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모두 혼전이 되었을 때의 사례로 지의

부수가 빠짐없이 확인된다. 1757년까지는 단일 지의를 깔다가 1805년부터 3부를 깔았다. 1659년까지 별문상석으로 지의를 만들다가 1683년 이후 황화석으로 바뀌었다. 특히 1683년 의궤에서는 ‘별문상석을 황화석으로 대체한 지의 1부[別紋上席代黃花席(중략)地衣一浮]’라고 표현하여 혼전에 황화석지의를 까는 관행이 이 무렵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²⁾ “별문상석을 황화석으로 대체한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기존에 깔려있던 별문상석 지의를 황화석 지의로 교체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별문상석을 까는 기존 관행과 다르게 황화석 지의를 깐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이 무렵부터 혼전에 황화석 지의를 까는 것이 관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조선 후기 창경궁 문정전 내부의 지의 내역

연도	지의 부수	지의별 석자수	총 석자수	석자 종류	선감 수량	출전
1649	1	69	69	별문상석		(인조)빈전도감의궤
1659	1	96	96	별문상석		(효종)빈전도감의궤
1683	1	35	35	황화석		(명정왕후)빈전도감의궤
1688	1	35	35	황화석		(장렬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720	1	33	33	황화석		숙종혼전도감의궤
1724	1	33	33	황화석		(경종)혼전도감의궤
1730	1	33	33	황화석		(선의왕후)혼전도감의궤
1757	1			황화석		(인원왕후)혼전도감의궤
1805	3		32장 6문	황화석	2필 33척 7촌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43	3		42	황화석	2필 30척 5촌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57	3		40장 3문	황화석	2필 30척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878	3		40장 3문	황화석	2필 30척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문정전도 19세기부터 지의 3부를 만드는 데 쓴 선감 수량이 확인된다. 1805년에는 황화석 32장 6문으로 지의 3부를 만들면서 선감 2필 33척 7촌을 썼다. 1843년에는 황화석 42장으로 지의 3부를 만들면서 선감 2필 30척 5촌을 썼다. 1857년과 1878년에는 석자 40장 3문

22) “별문상석을 황화석으로 대체한다.”는 표현은 1680년의 의궤 기록부터 확인된다(“정전에 배치하는, 별문상석을 황화석으로 대체한 지의 1부는 남색 3승 천으로 선을 두르는데 전 내를 계산하여 실제로 투입한다[正殿所排別紋上席代黃花席地衣一浮藍三升縵 從殿內算摘 實入].”『(仁敬王后)殯殿都監儀軌』)

으로 지의 3부를 만들면서 선감 2필 30척을 썼다. 선감 수량이 2필 30척 정도로 비슷하고, 1805년보다 더 많은 석자를 투입한 1843년과 1857년, 1878년에 오히려 선감 수량이 약간 적은 것으로부터 문정전 지의도 석자의 연폭 부위 상부에 천을 대지 않고 지의 가장자리에만 선을 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정전 지의 내역을 선정전과 비교하면, 17세기에 지의 부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선정전은 1609년 이래 1675년까지 세 사례에서 3부를 깔았거나 깔았다고 추정되는 반면, 문정전은 1649년 이래 1730년에 이르는 8개 사례에서 모두 지의 1부를 깔았다. 따라서 선정전과 문정전의 지의 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609년 선정전의 지의 3부는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 깔았고, 1659년과 1675년의 지의 3부는 국왕의 빈전을 설치했을 때 깔았다. 반면에 1649년 이래 1730년까지 문정전에 단일 지의를 깔 7개 사례는 모두 혼전이 되었을 때이다. 1675년 이전 선정전의 사례는 건물의 용도나 의례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은 반면, 문정전의 사례는 모두 혼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정전의 사례가 편전 지의의 보편적 배치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전과 편전으로 구성되는 궁궐 법전은 통치 의례와 정무 기능에 적합하게 평면을 구획하였고, 국왕이 거처하는 궁궐의 법전에는 지의를 늘 깔아 놓았다. 창덕궁 선정전은 정조 때까지 정무 처소로 이용하였다. 『승정원일기』에서 “선정전에 남시다[御宣政殿.]”를 검색하면 숙종 164회, 경종 40회, 영조 595회, 정조 151회로 나타난다. 1800년 이전에 선정전에 혼전을 설치한 사례가 없는 것은 선정전이 ‘시사[視事]’ 즉, 통치 의례를 겸한 정무 처소였기 때문이다.²³⁾

그러므로 선정전에서 행한, 의궤에 정리할 만큼 중요한 의례들은 기존에 깔아 둔 지의 위에서 거행했을 짐작할 수 있다. 정해진 의식절차에 따라 중국 사신을 접대할 1609년과 효종과 현종의 빈전을 설치한 1659년과 1675년의 선정전 지의 3부는 국왕의 의례 및 정무 처소인 선정전에 깔도록 규범화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상례에 특화된 ‘황화석지의’가 아니라 ‘별문상석’ 3부를 깔고 빈전을 설치한 시기에는 선정전에 깔아 놓은 지의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²⁴⁾ 특히

중간한 선정전에 처음 깔고, 그 위에서 중국 사신을 접대할 1609년의 유문석지의 3부는 편전의 의례와 정무 기능에 적합한 공간 구획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법전으로서의 정전과 편전에서 핵심적인 평면 분할은 전고주(前高柱)를 기준으로 하는 영외와 영내의 구분이다.²⁵⁾ 영외는 건축구조로 전퇴에 해당한다. 또 다른 분할은 후고주가 있거나 후고주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의 북쪽 구획으로 어좌를 설치하는 곳이다. 건축구조로는 후퇴에 해당한다. 국왕이 북벽 중앙에 설치한 어좌에 앉고 신하들이 영외에 부복했다가 영내로 나아가는 것은 의례의 절차이자 동선이었다. 선정전에서 영외에 부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어좌 앞으로 나아가 국왕의 질책을 받은 사례는²⁶⁾ 영내와 영외의 위상 구분과 성격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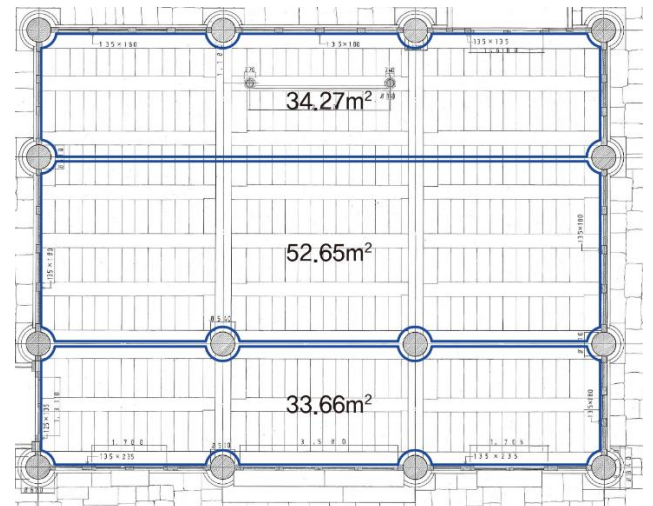


그림 6. 현 선정전의 구획별 면적과 지의 재현

그러므로 편전에 깔 지의 3부는 일차적으로 영외와 영내의 구분을 표현하며, 전체적으로는 전퇴(영외)·중앙부(영내)·후퇴의 건축적 평면 구획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1829년 각기 33장으로 구성된 명정전 지의 2부도 영내와 영외의 경계를 표현하거나, 영내와 영외

衣一淨)가 보인다(『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 황화석지의는 이 무렵부터 상례에 특화되었으므로 빈전이 된 선정전에도, 혼전에 1부를 까는 관례를 적용하여 단일 지의를 만들어 깔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빈전이 설치된 편전에는 유문석(별문상석) 지의일 때에는 기존에 깔아 놓은 3부를 그대로 쓰다가, 1680년 무렵 황화석지의로 바뀌면서 단일 지의를 깔았으며, 이후 1800년 무렵부터 황화석지의 3부를 까는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23) 윤정현, 「조선시대 원묘제 정비와 편전의 혼전 및 빈전 설치」,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0 참조.

24) 선정전은 1683년 명성왕후의 빈전을 설치했을 때부터 황화석지의를 깔았다. “빈전의 잡물을 불태운 항목(殯殿雜物燒火秩)”에 포함되는 물품 중에 ‘황화석 27장을 붙인 지의 1부(黃花席二十七張付地

25)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편전 건축형식」,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 참조.

26) 『승정원일기』 제1477책 정조 4년(1780) 12월 16일(경신) “上御宣政殿 儒生殿講入侍時(중략)幼學李思謙 曲拜後不遵楹外進伏 直趨過榻前 上曰 此是注書不能指揮之致 當該注書汰去 其代卽爲差出”

의 평면 구획은 1609년 선정전에 간 지의 3부의 면적 비례에서도 확인된다.

석자는 규격이 일정했을 것이므로 석자수 20장, 28장, 20.5장의 비례는 곧 면적의 비례가 된다.²⁷⁾ 다만, 1647년에 증건한 지금의 선정전 평면은 1609년에 간 지의 3부의 석자수 비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현 선정전의 전퇴, 중앙부, 후퇴의 면적은 각기 33.66㎡, 52.65㎡, 34.27㎡로 측정되어 비례는 20 : 31 : 20.4로 산출된다. 그렇더라도 동일한 면적의 2개 구획과 이보다 넓은 1개 구획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1609년에 선정전에 간 지의 3부는 건축 구조상 전퇴, 중앙부, 후퇴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현재의 선정전에 적용하여 도시하면 그림 6)과 같다. 이러한 배치가 조선 후기 궁궐에서 법전으로서의 편전에 지의를 까는 규범이었을 것이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궁궐 지의의 구조와 형태를 살피고, 정전과 편전으로 구성되는 법전의 지의 배치 방식을 확인하였다. 지의는 복수의 석자를 연결하고 테두리에 선(緘)을 둘러 완성하였다. 석자의 폭 방향 연결 부위는 가장자리에 휘감을 쳐서 연결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정합적인 방식이었다. 사진 자료와 실물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것 외에 휘감치지 않은 석자를 잇대어 놓고 연폭 부위 상부에 좁은 천을 대고 꿰매어 연결한 것도 확인된다. 이는 보편적인 구조가 아닐뿐더러 19세기 말에 새롭게 법전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종친부 경근당의 지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조선 후기 궁궐 지의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생각된다. 1800년에서 1878년 사이 선정전과 문정전의 7개 사례에서 지의 3부를 구성한 석자 수가 시기별로 다르면서 선감은 2필 30척 정도로 동일한 것도 지의 가장자리에만 선을 둘러쌌음을 알려준다.

지의는 단일 평면에 단일 지의를 깔거나 단일 평면을 필요에 따라 복수의 구획으로 나누어 깔았다. 국왕이 거처하는 궁궐의 정전과 편전에는 복수의 지의를 깔아 통치 의례에 적합한 공간 분할을 표현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공간 분할은 전고주를 기준으로 하는 영

외와 영내의 구분이었다. 정전은 영내·영외, 좌탑 좌측·우측의 4개 구획으로 나누어 지의 4부를 깔았다. 편전은 영외와 영내, 어좌가 놓이는 후퇴의 3개 구획으로 나누어 3부를 깔았다.

창덕궁 인정전을 증건하고 1609년에 처음 간 지의 4부, 1829년 왕실 잔치 때에 창경궁 명정전에 간 지의 4부, 창덕궁 선정전을 증건하고 1609년에 처음 간 지의 3부는 이러한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 궁궐의 정전과 편전에 이 원칙에 따라 지의를 제작해 깔면 조선 후기 법전의 의장(意匠)을 회복함과 더불어 이곳에서 행한 의례를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진 및 회화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list>) 「무신진찬도병(1847)」, 「(기축)진찬도병(1829)」, 「훈인60주년기념잔치(회흔례도)」, 「서울규장각중당서가」, 「서울성균관계성사우배향좌」, 「서울종로문묘동무내부」, 「서울종로종묘정전내부」, 「함남함흥의릉정자각내부」
2. 의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s://kyu.snu.ac.kr/>) “자료 및 원문검색” 『영점도감군색등록(1609)』, 『(인조)빈전도감의궤(1649)』, 『(효종)빈전도감의궤(1659)』, 『(현종)빈전도감의궤(1675)』, 『(인경왕후)빈전도감의궤(1680)』,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1683)』, 『(장렬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1688)』, 『(경종세자)책례도감의궤(1690)』, 『(숙종인현후)책례도감의궤(1694)』, 『(인현왕후)혼전도감의궤(1701)』, 『숙종혼전도감의궤(1720)』, 『(경종)혼전도감의궤(1724)』, 『(선의왕후)혼전도감의궤(1730)』, 『(인원왕후)혼전도감의궤(1757)』,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1800)』, 『인정전영건도감의궤(1805)』,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1805)』,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1821)』, 『(기축)진찬의궤(1829)』, 『순조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1834)』, 『헌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1849)』,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1857)』, 『철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1863)』,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1878)』
3.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main.do>
4. 『선화봉사고려도경』
5. 『태종실록』
6. 『성종실록』
7. 『광해군일기[중초본]』
8. 『고종실록』
9. 『순종실록부록』

27) 지대석 위에 설치하는 정전 좌탑과 달리 편전 좌탑은 규모가 작고 조립이 용이하여 지의 위에 설치했다고 보인다. 문정전 좌탑 하부에 운족(雲足)을 설치한 것은(“문정전)座榻唐朱漆 風穴欄干眞粉漆 下設雲足仍用(“[仁元王后]魂殿都監儀軌(1757)”) 이러한 구조를 잘 보여준다.

88 논문

10. 석진영, 「궁궐 연향 공간의 지의 연구」, 『건축역사연구』 29-1, 2020
11. 윤정현, 「조선시대 원묘제 정비와 편전의 혼전 및 빈전 설치」,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0
12. 이종서, 「조선시대 ‘편전(便殿)’의 의미와 구성의 변화」, 『건축역사연구』 30-6, 2021
13.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14.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 도구」, 『역사민속학』 24, 2007
15. 장경희, 「조선후기 왕릉 정자각 내부 의물 연구」, 『역사민속학』 33, 2010
16.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편전 건축형식」,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

접수(2023.04.04.)

게재확정(2023.05.08.)